

학종 평가서 자사고·특목고에 특혜... 대대적 수술 예고

교육부, 13개 대학 학종 조사 결과 학종 평가시간 짧아 부실평가 우려 추가 감사, 가이드라인 내실화 진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대학들이 대입 학생부종합 전형(학종) 서류평가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자를 우대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금지되는 3불(不) 정책 중 고교 등급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홍익대(가나다순)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의 학종 지원자와 합격자의 평균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내신 등급이 일반고(자사고)와 고(국제고)·과학고 순으로 높았다. 이는 내신 등급이 일반고보다 낮은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미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또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 학생부나 대학이 고교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집하는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기재가 금지된 정보가 편법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이나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도 있었으나, 규정에 따라 해당 교직원이 전형 과정에서 회피·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의 학종 평가시스템 상 서류평가 시간이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나 특정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입 전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고, 13개 대학 모두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교육부는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평가의 세부요소와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학종에 대한 대규모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이 특혜를 받는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발표할 자사고 등의 일반고로의 일괄 전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성장세' 삼양,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삼양식품그룹은 2019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 채용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 회사는 삼양식품을 비롯한 5개 회사이며, 모집분야는 ▲생산 ▲품질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구매 ▲인사 ▲총무 ▲법무 ▲홍보 등이다.

전형은 서류, 1차 면접(실무진), 2차 면접(임원진) 순으로 진행된다. 각 전형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되며, 최종 합격인원은 오는 2020년 1월 중순경 입사하게 된다.

서류 접수 및 기타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삼양식품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양



삼양식품그룹이 2019년도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삼양식품

식품그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열정 가득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식품은 해외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임직원 수가 2015년 1107명에서 2019년 10월 말 기준 1629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이석묵 국민대 교수 바이오의약품 대상

국민대학교는 응용화학부바이오 의약전공 이석묵 교수(사진)가 지난 1일 '제2회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 대상'에서 대상(보 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바이오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GE healthcare life science가 후원하는 상이다.



이석묵 교수는 현재 대장암 치료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어비투스(물질명 세특시맵)이 듣지 않아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특시맵 저항성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대상을 수상했다.

/한용수 기자

한남대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사업 선정

총 3년 동안 11억여원 지원 이공계 학부생 중심 팀 구성

한남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연간 3억6000만원씩 3년 동안 1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석·박사를 그룹리더로 하고 이공계 학부생 중심으로 실전문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남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소재&바이오 영역(화공신소재공학과, 생명시스템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산·제조 영역(기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광선서공학과) ▲IT·전자 영역(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공학

과) 등 3개 영역 실전문제연구팀과 자율선정 연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전문제 수요발굴을 위해 산학협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접목해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중소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한남대는 학생들의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기업이 원하는 전문 융합인력을 양성하도록 설계했다. 대전지역의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취업에 질과 양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한남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률 상승은 물론 대전지역의 3대 핵심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현경 기자

노벨상 윌리엄 케일린 교수 서울대 초청 특강·간담회

서울대학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가 오는 8일 2019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윌리엄 케일린(William G. Kaelin) 교수를 초청해 강연과 간담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케일린 교수는 세포가 어떻게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지, 특히 Von Hippel Lindau (VHL) 암억제자가 산소 농도 감지에 관여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상을 수상했다.

강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26동 B101호에서 진행되고, 이어 오후 2시 500동 1층 목암홀에서 서울대 학생들과 '과학자로서 삶이나 연구에 대한 조언' 등 자유로운 주제의 간담회를 갖는다. 관심있는 학생, 연구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가톨릭대 베르살디 추기경 초청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학교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혜화동 신학대학대강당에서 사목 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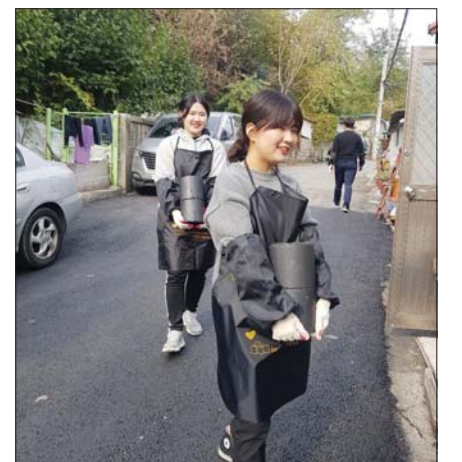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엄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을 주제로, 가톨릭계 대학이 교황청립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교황청 교육성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이 '교회 대학교와 대학원들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교회법 분야에 있어서 그 적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서 ▲아시아티코코신부(교황청립 산토토 마스대 교회법대학원장) ▲전영준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한영만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사랑의 연탄 나눔... 1200장 배달

한성대학교는 교직원과 학생 등 30여 명이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상계3·4동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정에 연탄 400장씩 총 1200장을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한성대 사회봉사단, 한성대 해외봉사단을 비롯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기획한 한성대 교수봉사회장 이재득 교수(스마트경영공학부 시스템경영공학 트랙)의 한양대 산업공학과 동문 모임인 한양대 성산회 소속 전직 교수 등도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학생들이 지난 2일 서울 상계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성대

청주대 전문 특허 워크숍서 33개 출원 성과

청주대학교는 재학생의 기술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능력 함양을 위한 '2019 전문특허 워크숍'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청주대 미래창조관(학생창업관)에서 재학생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청주대 전문특허 워크숍은 1인 1 특허 출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워크숍 운영 결과 특허 출원 31개, 상표 출원 1개,

디자인 출원 1개 등 모두 33개 출원 성과를 얻었다. 청주대는 지난 2016년에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SEIP를 자체 개발해 인식전환(창업동기부여), 기업가정신 함양(마인드셋), 시제품개발 및 검증 방법의 이해, 실전창업 등 4단계에 필요한 20여개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 창업경진대회 및 시제품 등 성과 전시회를 이달 개최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